

# 흡연의 미학

2020.1.31

각본 윤산

암전 속에 조용히 뜨는 타이틀. [흡연의 미학]

'탁, 탁'ライター 켜는 소리.

## 1. 술집 앞 거리 (밤 / 밖)

'탁' 켜지는ライター와 함께 켜지는 화면. 불이 붙여지는 담배. 길게 내뿜어지는 연기. 수선스러운 밤거리의 사람들 소리.

술집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떤 남자. 도영이다.

그를 부르며 달려오는 친구 태성.

태성           어이, 도영쓰!

태성을 무심하게 힐끗 보는 도영.

도영           어, 윤태성. 왔냐.

태성           (도영 옆에 선다) 안들어가고 뭐해.

도영           애들 기다려. 담배도 피우고.

태성           골초새끼... 담배 끊어라. 만날때마다 하는 소리 같은데.

도영           그러니까 하지마 이제. 몇 년째 그 소리...

태성           야. 냄새나서 뒤통지겠어. 요즘은 금연이 트렌드인거 몰라?

도영           (짜증) 아, 내가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태성           에휴... 답 없는 새끼.

도영           (발끈) 뭐 이 새끼야?

태성           애들 왔다. 어이!!!

저쪽에서 달려오는 남자 둘. 도영은 다 피운 담배를 땅에 버린다. 넛은 인사를 하고 술집으로 들어간다.

## 2. 술집 (밤 / 안)

원형테이블 앞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 넛. 테이블에 가득히 놓인 소주병들. 넛 모두 어느정도 취한 수준.

친구1           (빨간 얼굴로 고개를 숙인채 깊은 한숨을 쉰다) 후... 좇같다...

친구2           나도...

태성           (동의한다는 식으로 손을 든다)

**도영** (공감한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후... 나도—  
**친구들** 에이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머지 친구 셋이 도영의 머리통을 내려친다)  
**도영** 아이씨. 왜.  
**태성** 넌 임마. 자격이 돼?  
**친구1** 그래 이 새끼야. 넌 붙었잖아.  
**친구2** 거만한 자식...  
**도영** 아니 뭐.. 아직 결과 안나왔어!!  
**태성** 그래도 이번엔 진짜로 잘본것 같다며~ 확신한다며!!  
**친구1** 그래, 이게 너 취직 미리 축하파티잖아. 너 임마 떨어지기만 해, 너.  
**친구2** 그렇게 잘봤다는데 떨어지겠어.  
**도영** 부담 존나 주네. (소주 훌쩍)  
**태성** 야, 될 거야. 걱정마.  
**도영** (눈치보며) ...그렇..지...?

조용한 나머지 친구들. 자기들 앞날 걱정에 할 말이 없다. 일동 침묵.

**도영** (침묵을 깨며) 담배.

그리곤 일어서서 나가는 도영.  
친구1, 친구2도 일어서서 도영을 따라 나간다. 홀로 남겨진 태성.

**태성** (뺨뺨하게) 썸.. 혼자네. (소주 훌쩍)

### 3. 아파트 단지 (밤 / 밖)

늦은밤, 친구들과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영. 취한 발걸음이지만 뭔가 힘이 있다. 걸으며 하늘을 보는데, 드디어 취업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긍정적이다. ‘해냈다’ 라는 표정.  
아파트 건물을 들어가기 직전 멈칫하는 도영. 다시 뒤로 돌아나와 담배 한개비를 피운다.

### 4. 도영의 집 (밤 / 안)

집에 들어오는 도영. 맞이하는 도영의 어머니.

**어머니** 어 왔니? (도영에게 냄새가 나자) ...너 담배 피웠니??  
**도영** 어? 아니야. 뭐 담배.  
**어머니** 너 냄새 나잖아!! 너 담배 피워??

도영            아니야! 친구들 피울때 옆에 있어서 그런거야.  
어머니        어휴 얼마전부터 계속 냄새가 난다 했어!! 담배 좋을거 하나도 없어!!  
도영            아 안피운다니까!!  
어머니        도영아...!

도영은 투덜대며 방으로 간다. 폭 한숨쉬는 엄마.

## 5. 도영의 방 (낮 / 안)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뚫어져라 보고있는 도영.

INS. 도영의 핸드폰 화면속 문자.

문자            김도영님께서는 아쉽지만 OO전자 최종면접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어찌고 저찌고...

그걸 바라보는 낙담한 표정의 도영.

도영            하...

## 6. 골목 앞 (낮 / 밖)

INS. 불이 붙여지는 담배.

도영이 착잡한 표정으로 연기를 내뿜는다.

도영 (NA)     난 열여덟살부터 담배를 피웠다. 처음엔 호기심, 그 다음엔 멋, 그렇게 중독됐다. 올해 나이 스물일곱, 담배끊을 생각은 없다. 취업도 안되고... 불안정한 내 삶에 안정을 주는건 입에서 내뿜는 담배연기 밖에 없다. 빨리 취직해서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 아니면 모를까.

갑자기 옆에 나타난 태성.

태성            야 존나 멋있는 줄 알지 그게?  
도영            (놀라며) 아씨, 놀래라. 언제부터 와있었어?  
태성            좀 전부터. 담배 끊어라~  
도영            야 내가 멋 때문에 피우냐?  
태성            그럼 뭐 때문에 피우는데?

도영            몰라, 그냥. 피우는거지.  
태성            그러니까 왜 피우는데.

도영은 태성을 ‘넌 이해 못하지’ 라는 표정으로 본다. 순수한 표정으로 멀뚱히 쳐다보는 태성.

**도영 (NA)**      어릴적부터 친했던 동네친구 태성이. 생긴건 날라리 같지만 친구들 중 유일하게 담배를 안피운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한다.

도영            (살짝 짜증내며) 몰라, 힘들어서 피운다. 됐냐?  
태성            어휴. 담배 끊어라. 좋을꺼 1도 없다.  
도영            엄마랑 똑같은 말하네. (한숨) 그럴시간에 취직이나 빨리 해야지.  
태성            안되잖아.  
도영            (태성을 보며 짜증) 아이씨. 닥쳐.  
태성            취직하면 더 피울걸? 존나 힘들어서?  
도영            그런가...  
태성            어. 직장인들이 왜 다 담배를 피우겠어?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도영            그럼 지금 끊을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취직하면 다시 피울 건데.  
태성            안되잖아.  
도영            (다시 쳐다보며 성질) 이런 씨—  
태성            이번에도 안됐잖아~ 야, 금연하는게 더 빠를꺼?  
도영            (때리는 시늉) 아오 씨— 같은 백수주제에...  
태성            (웃으며) 알았어, 알았어. (갑자기 정색) 근데 진짜 좀 끊어라. 너랑 같이 있으면 냄새 때문에 뒤질 것 같아..  
도영            (짜증) 알았어, 끊을게 끊을게.  
태성            어휴. 피씨방이나 가자.

## 7. 도영의 집 / 어머니의 방 교차 (밤 / 안)

(도영의 집)

늦은 저녁, 집에 들어오는 도영.

부엌에 가서 물 한 컵을 마신 후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린다.

조용히 가서 문틈으로 보는 도영. 문틈사이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보인다.

(어머니의 방)

**어머니**            우리 도영이 제발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제발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제발... 끊게 해주세요...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보는 도영. 갑자기 들어가 어머니에게 소리친다.

**도영**            그런 기도 하지말고 나 취직이나 좀 되라고 기도해!!! 지금 나 담배 피우는게 문제야??

놀라는 어머니. 그런 도영을 슬픈 눈으로 쳐다본다.

**어머니**        (도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도영아, 담배 제발 끊자... 응?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도영**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아네. 그럼 취직은. 어?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되는데?? 그거나  
들어달라고 신한테 좀 물어봐!!!

**어머니**        도영아...

방을 박차고 나가는 도영.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어머니.

## 8. 피씨방 (낮 / 안)

INS. 사람들이 꼭 차있는 어는 피씨방.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욕설.

도영과 태성이 나란히 앉아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을 하곤 있지만 다른 생각에 잠긴 도영.

**태성**            (완전 몰입) 야, 저기 능선에 한명. 어우씨, 애 잘쓴다.

**도영**            ...나 금연할까?

**태성**            (놀라며 태성을 바라보는) 뭐???

**도영**            왜 그렇게 놀래.

**태성**            아니, 자의로 금연하겠다는거, 처음인 것 같아서. 근데 왜?

**도영**            ...엄마가 기도 하고 있더라고. 나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태성**            (한숨) ...그래 이 새끼야. 2년 전에 너희 아버님,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걱정이  
안되지겠냐? 취업도 못한 하나뿐인 아들도 남편 따라갈까봐.

**도영**            엄마 생각하면 끊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취업 생각하면... 쯤.

**태성**            청년실업이 담배사업을 일으키는구만. (웃음) 그래도 효자 다 됐네. 내가 도와줄게, 금연.

**도영**            (비웃으며) 니가 도움이 어떻게 돼.

## 9. 태성의 담배 처내기 몽타주

골목 (낮 / 밖)

건물에서 나오는 도영. 담배를 꺼내 입에 문다.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태성이 튀어나와 물고있는 담배를 쳐내버린다. 어이없다는 듯 태성을 쳐다보는 도영. 도영이 땅에 떨어진 담배를 다시 주우려고 하는데 태성이 발로 밟아버린다. 그런 태성을 올려다보는 도영. 태연하게 미소를 짓는 태성.

길거리 / 건물 뒷편 흡연구역 (낮 / 밖)

전처럼 도영이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태성이 튀어나와 물고있는 담배를 쳐내버린다. 그리고 밟아버린다. 태연하게 미소를 짓는 태성.

아파트 단지 (밤 / 밖)

집으로 걸어가는 도영.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태성이 튀어나와 물고있는 담배를 쳐내버린다. 그리고 밟는다. 태성이 다시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도영이 순간적으로 그의 뺨을 친다.

**도영**           작작해.

다시 걸어가는 도영. 뒤에서 계속 쳐다보는 태성.

**도영**           (뒤를 보고 태성을 눈치채고) 알았어 안피워.

계속 쳐다보는 태성.

**도영**           (그런 태성을 또 보고) 아 안핀다고!

## 10. 도영의 방 (낮 / 안)

책상 앞에 앉아있는 도영. 앞에선 태성이 서서 금연강의를 한다. 하지만 도영은 멍때리며 딴 곳을 보고있다.

**태성**           (열정적으로)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담배 근처도 안간 애기한테도 니코틴 성분이 나온거야!! 그리고 그 아빠는 몇년있다가 병걸려서 목에 튜브끼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런... (멍때리는 도영을 이제야 본다) 야 듣고있냐?

**도영**           ...어..어? 어.. 잠만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태성**           (짜증내며) 아 뭘 개소리야~ 이럴거면 이걸 왜 하고있냐?

**도영**           그러니까 이걸 왜 하고있어.

나가려고 일어서는 도영.

**태성**           야 김도영. 니가 끊을 거라며!! 도와주는거 아니야!!

도영 (방을 나가면서) 이런건 아무런 도움이 안돼.

### 11. 아파트 건물 앞 / 도영의 방 / 아파트 단지 교차 (낮 / 밖)

(아파트 건물 앞)

생각이 많은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는 도영. 도영을 따라 나온 태성. 옆에 선다.

태성 (먼곳을 보며) 그냥 포기해라.

도영 뭐?

태성 금연. 포기하라고.

도영 야 니가 그런 소리 하면 안되지! 도와준다며!

태성 지랄. 이게 금연한다는 놈의 자세냐? 니가 말했잖아. 내가 뭔짓을 해도, 니가 의지 없으면 절대 못끊어.

도영 (땅을 보며 한숨)

태성 (도영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니 어머니를 생각해.

태성은 뒤돌아 떠난다. 도영은 멀어져가는 태성을 보고 마음을 다시 다짐한다. 들고있는 담배를 아깝다는 듯이 쳐다보곤 땅에 버리고 태성에게 뛰어간다.

도영 아이, 야. (태성을 붙잡는다)

태성은 걸음을 멈추고 무심한 표정으로 뒤돌아본다.

도영 오케이. 진짜 끊는다.

태성 지랄. (다시 걷는다)

도영 (다시 붙잡으며) 아 진짜! 진짜로. 담배, 라이터, 다 버릴게. 안피워 이제.

태성 (멈추고 뒤돌아서) ...너가 해야되는거다, 진짜. 이걸 널 위한거야.

도영 어. 진짜.

CUT TO

(아파트 단지)

도영은 태성 앞에서 담배를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 버린다.

CUT TO

(도영의 방)

도영은 옆에서 감시하는 태성을 눈치보며 서랍을 열어 있는 라이터들을 다 모은다.



CUT TO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 앞에 서있는 도영과 태성.

태성            가스 다 비운거지?

도영            어.

도영은 다짐한 듯 큰 숨을 내쉬고 갖고 온 라이터들을 쓰레기통에 다 버린다. 옆에서 지켜보는 태성.

태성            피우다가 걸리면 뒤풀다.

도영            ...

태성            (갑자기 밝게) 피씨방이나 가자.

## 12. 도영의 흡연욕구 참는 몽타주

도영의 방 (낮 / 안)

불안한지 방에서 왔다갔다 거리는 도영. 주머니를 뒤지는데, 당연히 담배는 없다. 도영의 얼굴이 못참겠다는 표정으로 바뀌고, 서랍으로 달려가 미친듯이 뒤지며 담배를 찾는다. 하지만 담배는 없다. 탄식하는 도영.

도영의 집 거실 (낮, 안)

포기할 마음을 먹은 듯 방에서 나와 담배를 사러 나가려고 문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도영. 3번 반복.

어머니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 정신 사납게.

도영의 방 (낮 / 안)

담배를 대체할 거리로 군것질을 택한다. 컴퓨터를 하면서 각종 과자들을 마구 먹는다.

도영의 집 (밤 / 안)

늦은밤, 라면을 먹는 도영. 국물까지 다 먹는다.

도영            아, 배부르다.

그리곤 정말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려고 문으로 걸어가며 주머니를 뒤지는 도영. 순간 행동을 알아차리고 돌아서 우울한 걸음으로 방으로 간다.

방에서 들리는 도영의 짜증난 외침.

도영(O.S.) 아오!!

### 13. 헬스장 (낮 / 안)

INS. 헬스장 풍경. 운동하는 사람들. 밝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런닝머신에서 뛰고있는 도영.

도영 (NA) 난 요즘 거의 헬스장에서 산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달리는 도영.

도영 (NA) 난 금연에 열두하다 살이 5kg 쪼고, 대신 운동을 택했다. 태성의 제안이었다. 망가진 폐를 다시 살리라나 뭐라나.

땀을 뻘뻘 흘리는 도영. 많이 힘든지 런닝머신을 멈춘다. 헉헉거리는 도영.

도영 (NA) 아무튼 이제 금연 한 달 짜다. 죽을 것 같지만 매일 어떻게든 참고 있다.

런닝머신에서 내리고 탈의실로 가는 도영.

도영 (NA) 끝내 금연은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아직 제일 큰 문제가 남았다.

### 14. 회사 면접장 (낮 / 안)

정장차림의 도영이 면접장 가운데에 홀로 앉아있다. 그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 셋. 면접관1이 도영의 서류들을 훑어본다.

면접관1 김도영씨는... 경력이 별로 없네요?

도영 (긴장) 아, 네, 그래도 학교에서 실습한 경험과 전자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2 (무시) 인턴경험 가지곤...

도영 그리고 제가 근무한 부에서—

면접관3 (무시) 우린 경력직 뽑는데... 요즘엔 신입들도 워낙 화려한 애들이 많아서~ 도영씨는 별로 특출난 데가 없네요?

도영 ...  
 면접관1 (도영의 서류를 보다) 어... 됐고, 뭐, 물어보고 싶은거 있으면 물어봐요.  
 도영 ...  
 면접관1 없어요? 그럼—  
 도영 (고개를 숙인) ...다 경력직만 찾으면... 나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면접관2 뭐요?  
 도영 (고개를 든다) 아니... 다 경력직만 찾으면 나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고...  
 면접관3 저기요—  
 도영 그냥 좀 뽑아줘...  
 면접관2 ...네?  
 도영 (폭발) 아 그냥 좀 뽑아주라고!!!

놀란 면접관들.

도영 (울먹, 억울한듯이) 시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경력 없으면 너네들이 좀 뽑아주면 되잖아. 어?!

병찐 면접관들.

도영 에이 시발!!

박차고 그냥 나가는 도영.  
 그런 도영을 보는 면접관들. 어리둥절하다.

면접관1 아니 무슨...

### 15. 아파트 단지 근처 거리 (밤 / 밖)

면접이 끝난 후, 늦은밤 집으로 걸어가는 도영.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다. 받는 도영.

도영 (힘없이) 여보세요.  
 어머니(O.S.) (조심히) 면접은 어땠니?  
 도영 아... 잘 못봤어.  
 어머니(O.S.) 어... 왜?  
 도영 아, 그냥...  
 어머니(O.S.) 그냥이 뭐야...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더 잘보지.

**도영** (걸음을 멈춘다) 아 그냥 긴장했어!

전화를 끊는 도영. 한숨을 쉰다. 그러다 주머니로 손이 가는데, 당연히 담배는 없다. ‘아...’ 아쉬워하는 도영. 무심코 옆을 보는데 딱하니 있는 편의점. 뚫어져라 쳐다보는 도영. 편의점으로 한걸음 나설려고 하는데 멈칫. 고민에 빠진다.

**도영** (한숨)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아니야.

도영은 집으로 가던 길을 간다. 하지만 편의점으로 돌아간다. 그리곤 다시 뒤돌아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뇌한다. 다시 집으로 가는데... 얼마 되지않아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간다.

## 16. 도영의 방 (낮 / 안)

INS. 울리는 도영의 핸드폰. 태성의 문자.

**태성의 문자** 빅뉴스 있다. 잠깐 보자.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온 도영. 젖은 머리와 타월을 목에 감은채 태성의 문자를 확인한다. 옷을 입고 준비하는 도영. 향수를 엄청 뿌린다. 책상에 올려져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서랍에 넣어 놓는다.

## 17. 공원 (낮 / 밖)

도영이 버스에서 내린다. 약속장소인 공원에 서있는 태성. 태성을 향해 긴장된 걸음으로 다가가는 도영. 걸어오는 도영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유심히 쳐다보는 태성.

**도영** (어색하게 다가가며) 어, 왔냐? 일찍왔네. 빅뉴스가 뭔데?

태성이 갑자기 도영의 머리를 잡아당겨 냄새를 맡는다.

**태성** (쿵쿵)

**도영** (당황하며 뿌리친다) 야, 왜이래?

**태성** (다시 잡는다) 중간점검. (냄새를 맡고, 어이없다는 듯) 야... 너... 피웠지?

**도영** 원소리가 안피웠어!

**태성** 개소리 하지마. 딱 말아봐도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구라를 쳐. 야, 너 약속 했잖아. 이러기냐? 어떻게 끊은건데 다시 원점이야!!! 내가 나 때문에 이러냐고!

**도영** 하지마 그럼!!!

놀란 태성. 도영을 쳐다본다.

**도영** 하.. 시발. 하지마. 어? 관둬. 신경 쓰지마. 니가 뭐라고 이러냐? 너나 나나 이딴거 가지고...  
야, 너 이럴 시간에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고, 자소서 한줄이라도 더 써. 한심한 새끼.  
**태성** (당황) 야... 너...  
**도영** 정신차려 병신아!! 지금 금연이 문제야? 지금 우리 인생을 봐! 너도 나처럼 똑같은 백수새끼일  
뿐이야!! 내가 담배 피우는게 뭐 상관인데. 남이 담배 피우든 말든... 시발.  
**태성** (상처) 하... 그래 관둬. 내가 뭐 상관이나. 니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도영** 오지랄 새끼.

태성을 버리고 집으로 가는 도영. 멀어지는 도영을 보는 태성. 바닥을 보며 한숨 쉰다.

### 18. 도영의 방 (밤 / 안)

문을 열고 방에 들어오는 도영. 침대에 풀썩 누운다.

**도영 (NA)** 이럴땐 담배가 땡긴다.

일어서서 서랍을 열어 담배를 보는 도영. 착잡한 표정.  
그 순간 주머니에 있던 도영의 핸드폰에 문자 알람이 울린다. 꺼내서 보는 도영.

**태성의 문자** 미안하다.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니 일에 끼어드는게 아니었어. 너도 힘든데 너 하고싶은대로  
해라. 당분간은 만나지 말고 그냥 취업에 집중하자. 취업하면 서로 축하 겸 보는걸로. 오케이?

태성의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책상에 놓는다. 생각이 깊어진 도영.

### 19. 도영의 집 (낮 / 안)

깔끔한 정장차림의 도영과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있다. 정장을 차려입은 도영.

**어머니** 긴장 하지 말고. 알았지?  
**도영** (무심하게) 어.  
**어머니** 면접 시간 안늦었어?  
**도영** (시계 보고) 어, 아직 시간있어. 밥 다 먹고 갈게.  
**어머니** ...태성이는 요즘 안만나니?

**도영** (어머니를 보며) 태성이는 왜?  
**어머니** 어? 아니 그냥. 전에는 매일 보는 것 같더니. 요즘엔 안만나는 듯 해서.  
**도영** 어... 안본지 좀 됐어.  
**어머니** 그래 뭐... 회사일 때문에 바쁘겠지...  
**도영** (놀람) ...회사? 개 입사했어?  
**어머니** 어.. 몰랐니? 태성이가 얘기 안해줬어? 몇달 됐는데...  
**도영** 몇달??  
**어머니** 어... 몇달 전에 태성이 엄마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구. 드디어 취업했다구.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태성이가 무슨 말 안하디?  
**도영** 어.. (잠시 기억을 되감는다)

*(FLASHBACK)*

도영의 방. 도영의 핸드폰에 뜨는 태성의 문자.

**태성의 문자** 빅뉴스 있다. 잠깐 보자.

*CUT TO*

공원에 서있는 도영과 태성.

**도영** 하.. 시발. 하지마. 어? 관둬. 신경 쓰지마. 니가 뭐라고 이러냐? 너나 나나 이딴거 가지고...  
 야, 너 이럴 시간에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고, 자소서 한줄이라도 더 써. 한심한 새끼.

**태성** (당황) 야... 너...

**도영** 정신차려 병신아!! 지금 금연이 문제야? 지금 우리 인생을 봐봐! 너도 나처럼 똑같은  
 백수새끼일 뿐이야!!

*(다시 현재)*

태성이 결국엔 알려주지 못했던 빅뉴스가 취직이었던걸 알아차린 도영.

**도영** 아...

## 20. 회사 건물 앞 (낮 / 밖)

INS. 복적거리는 시내.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어느 회사 건물.

회사 앞에 도착한 도영. 마음을 다잡고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옆에 담배를 피우는 한 남자를 보게 된다. 하지만 곧 무시하고 들어간다.

## 21. 직장생활 몽타주

1년 후.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도영. 회사에서 바쁘게 업무를 보고있다. 머리스타일도 올림머리로 바뀌었다. 그 위로 흘러가는 도영의 나레이션.

**도영 (NA)** 나는 끝내 어느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꿈을 이루었다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지겨운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도 그저 허기를 채워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놀고싶다. 미치도록. 백수였을때가 차라리 나았나?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다. 다들 뭐하고 지내려나. 그리고 담배는...

CUT TO

## 22. 도영의 집 (낮 / 안)

과거. 도영의 면접날. 아침을 먹고있는 도영과 어머니.

**어머니** 아 그리고, 너... 담배는 끊었니?

**도영** (밥을 먹다 엄마를 본다)

CUT TO

## 23. 편의점 / 편의점 앞 거리 교차 (낮 / 안)

(편의점)

현재. 정장차림의 도영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음료수 코너로 간다. 카운터 앞에선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남자 회사원이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간다. 바나나 우유를 고르고 카운터 앞으로 가는 도영.

(편의점 앞 거리)

계산을 하고 나오는 도영. 무심히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데... 태성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편의점 카운터 앞의 그 회사원이다.

아직 도영을 못 본 태성. 태성을 알아본 도영의 눈이 커진다.

**도영** 윤태성??

부름에 고개를 돌린 태성, 도영을 알아본다. 역시 놀라는 태성.

태성           야!! 뭐야??  
도영           (태성에게 다가가며) 뭐긴 뭐야! 나지~ (태성의 담배를 보고) 야, 너...! 담배 피우냐?  
태성           (머쓱) 어... 뭐... 그렇게 됐어.

내심 놀라고 황당하지만 그저 태성이 반가운 도영.

도영           (웃으며) 너 이새끼!! 나한테 그렇게 끊으라더만!! 이젠 니가 피우네?  
태성           (머쓱하게 웃는다)  
도영           (한숨) ...회사생활 힘들지?  
태성           (살짝 웃으며) 뭐, 다들 그렇지. (정장입은 도영을 보며) 너... 취직했구나!  
도영           어. 드디어 했다...  
태성           ...그래서 담배는 끊었냐?

태성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보는 도영.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갑을 꺼낸다.

도영           (머쓱하게 웃는다)

CUT TO

#### 24. 도영의 집 (낮 / 안)

과거. 다시 도영의 면접날. 아침을 먹고있는 도영과 어머니.

어머니        아 그리고, 너... 담배는 끊었니?  
도영           (밥을 먹다 멈칫하고 엄마를 본다) ...아직 못끊었어... 천천히 끊을게... 조금씩 줄이고는 있어  
                  그래도.  
어머니        (아쉽지만 받아들이는) 그래...  
도영           (일어서며) 다 먹었다. 나 갈게.  
어머니        어 그래. 면접 잘 보고와! 떨지 말구!  
도영           어~

문을 열고 나가는 도영.

CUT TO

#### 25. 편의점 앞 거리 (낮 / 밖)



다시 현재. 편의점 앞의 도영과 태성.

태성           (웃으며) 에휴.  
도영           그래도 나 요즘 진짜 많이 줄었어.  
태성           (비웃으며) 그래~

둘은 같이 담배 피우며 웃으며 못다한 얘기를 한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소한 거리의 평범한 회사원 둘.  
페이드 아웃되며...

도영           아... 끊어야 되는데...  
태성           올해 안에 끊자.  
도영           ...안되겠지?  
태성           아마도.

거리에 서있는 둘을 비추며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THE END.